

## 24년 11월 목회일정

10.21~11.16 17일(주일)	공식심방(재정심방포함) 감사주일(감사나무만들기-하나회) 성찬연령별모임
24일(주일) 2일(토) 5일(화) 18-19일 19일(화)	연합당회(장로+집사) 부산중부노회 어린이대회(온천교회당) 노회 고시부(서창교회당) 노회 목양회(경주 코모도호텔) 고신목회자찬양단 모임(하단교회당)

##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선교목적(외국인근로자선교회)
3. 성찬입회교육 / 김성재 이은수학생
4. 공식심방 / 공식심방이 계속됩니다. 기도해주세요  
11일(월) 최진연성도(18:30)  
12일(수) 김영민가정(20시)  
14일(화) 김영규가정(15시)  
15일(금) 김민혁가정(12시) 김낙형가정(20시)  
16일(토) 양주동가정(12시)
5. 감사주일 /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오후에 하나회 주회로 [감사나무만들기]를 진행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의 제목을 적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6. 성찬연령별모임 / 다음 주일 모든 순서 후 성찬연령별모임이 있습니다.
7.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연합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 이 달의 봉사자

	11월	12월
교회소식	김영민	고충석
봉 헌	박지영	강정희
안 내	김민혁	노주혜

##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 혁 정 론(고신 개혁 언론)
	파 서 교 회(고신,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국 성 연 화 교 회 ( 최 지 혁 )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11.10.(제28-45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 교회소식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다.

## 개 회

- \* 예배에로의부름 ↑ 시66:1-2(교송)  
인도자 :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회 중 :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 \* 축 복 의 인 사 ↓ 고전1:3(다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 경 배 찬 송 ↑ 시편89편(7-8)

## 죄의고백

- \* 십 계 명 봉 독 ↓ 출20장(전계명/교독)
- \* 죄 의 공 적 고 백 ↑ 다같이
-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 감 사 찬 송 ↑ 찬송10장(9a-10)

## 말씀봉사

-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 성 경 봉 독 ↓ 사8:11-13 벰전3:13-17
-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41장
- 설 교 ↓ 설교자

##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

-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 성례시행

- 세 례 식 ↑ 필요시 시행
- 성 찬 식 ↑ 초대 신앙고백 시편133편 구제헌금 분병 분잔
- 목 회 의 기 도 ↑ 설교자

## 봉사사역

- 봉 헌 및 봉 헌 찬 송 ↑ 찬송27장

## 폐 회

- \* 강 복 선 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b>주일오후예배</b>	오후 3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b>개 회</b>		
* 예배예로의부름 ↑	시99:1,3(교송)	
인도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b>회 중:</b>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 축 복 의 인 사 ↓	벤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 배 찬 송 ↑	시편50편(9-11)	
<b>신앙고백</b>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고신총회)	
* 감 사 찬 송 ↑	찬송24장(5a-6b)	
<b>말씀봉사</b>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 경 봉 독 ↓	마16:18-19,18:15-20	
교 리 문 답 교 독 ↓	하이델베르그83-85문답	
선포를위한찬송 ↑	시130편	
설 교 ↓	설교자	
<b>천국의 열쇠</b>		
아 멘 송 ↑	찬송가643장	
<b>자비사역</b>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가35장	
<b>폐 회</b>		
* 강 복 선 언 ↓	설교자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

1. 성도들이 악한 세대로 인하여 깨달없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부요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2. 의를 따라 행함에도 해를 당할 때 복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인해 담대할 수 있도록
3. 구원의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그 이유를 운유함과 경외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지혜주시길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목사)

1. 노동과 생활풍속 문화의 차이와 언어로 어려움을 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2.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주들이나 내국인 동료직원들의 차별없는 대우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3. 이교도인 근로자들이 신앙의 건덕을 지닌 내국인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의 봉사를 위하여

1. 직분자들이 마음의 운유함과 겸손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주의 몸을 굳게 하도록
2. 직분자들이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돌아보며 자신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3. 직분자들이 주의 자녀된 성도들을 돌아보기에 전심전력을 쏟을 헌신되고 충성된 마음주시길

국가위정자와 이웃을 위해

1. 대통령과 국가 공직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직임을 정직하고 책임있게 잘 감당하게
2. 공직자로 있는 성도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의와 진리를 따라 감당하며 정직함으로 임하도록
3. 신앙 때문에 핍박과 손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인내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맞보도록

<b>주간기도회</b>		
<b>아침기도회</b>		
월~금 6시(교회밴드)		
<b>요한복음 묵상</b>		
인도 : 최성림 목사		
<b>수요기도회</b>		
수요일 20시(예배당)		
<b>[말씀·고백·삶]</b>		
인도 : 최성림 목사		
<b>지역기도회</b>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목, 10:30)		
* 울산(화, 19:30)		
인도 : 양주동 목사		
* 김해(수, 19시)		
* 특별(시간지역협의)		
<b>이야기성경</b>		
구	78. 예레미야 선지자	
	79. 다니엘의 친구들	
신	50. 여행을 떠나는 바울	
<b>주간성경읽기</b>		
주일	대하1-3	요18:19-40
월	대하4-6	요19:1-22
화	대하7-9	요19:23-42
수	전 1-3	요 20
목	전 4-6	요 21
금	전 7-9	딤후 1
토	전10-12	딤후 2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실 때 모세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라고 하며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불가하다고 거듭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 하나!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고 하십니다.

아론은 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모세는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이나 교제하며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아론이 백성들을 다스리며 인도하였습니다.

모세가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한 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 말쟁이 아론은 어떤 고민도 없이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몸에 있는 금붙이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한 후 그것을 녹이고 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고 하니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진짜 신인 것처럼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춤추며 뛰 놀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라 모세에게 백성들의 망령된 죄악을 알리시고, 그로 백성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 보냈습니다. 백성들의 추악한 행태를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린 후, 아론을 불러 이계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쟁이 아론이 말장난을 합니다. “이 백성이 악한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단지 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그 금붙이를 불에 던졌더니 이렇게 금송아지가 툭 튀어 나왔습니다”

모든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단지 그들이 가져온 금붙이를 불에 던져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오더라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금붙이들을 받아 금송아지 틀에 붓고, ‘직접’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출32:4절에 금붙이를 ‘받고 붓고, 새겼다’는 이 세 개의 동사는 다 3인칭 단수, 곧 이 행위의 주체를 아론이라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이 때 아론이 속한 레위지파는 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고, 도리어 아웨의 편에 서 있었고(레위인들이 자기 아들과 형제도 쳤다는 증언을 볼 때 레위지파 모두가 이 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29절), 모세가 아웨의 편에 선 자를 부를 때, 칼을 들어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들 중에 삼천명을 죽였습니다. 온 백성이 범한 큰 죄악에 비하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에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아론은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세의 형이어서 살려둔 것일까요? 말쟁이가 말을 잘 해서 피한 것일까요? 아니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던 3000명의 핏값을 받으셨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웨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그를 살려놓으신 것일까요?(35절은 ‘이들 죽은 자들이 아론의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의역을 한다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이들이 금송아지 되게 했기 때문이다’ 곧 ‘아론의 죄보다 금송아지를 참 신으로 보고 섬긴 자들의 죄를 크게 보셨기 때문이다’는 의미입니다)

니다. 당연히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신실하게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도 ‘천국의 열쇠’로서 복음 설교를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복음 설교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줄 알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교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설교는 천국 문을 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닫기도 합니다. 복음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온전한 설교라면 복과 함께 반드시 저주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에는 책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천국 문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마음이 묻어있습니다.

2. 두 번째 열쇠: 교회의 권징

교회의 권징은 “닫히고 열립니다.” 문이 닫히는게 먼저라면, “문이 열린 상태”가 전제되어있습니다. 복음의 강설은 불신자에게도 선포됩니다. 하지만 교회권징은 신자에게 적용됩니다. 천국의 은혜를 받고 있는 신자에게 해당됩니다. 교회의 권징은 닫히지만 결국은 “열립니다.” 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는 것이 목적입니다. 권징을 통해 범죄한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권징의 과정을 보면, 먼저 ‘개인적인 권면’부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권면을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권면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교회의 권징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권면으로 회개의 경험을 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의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마 18:21-35).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뺀 사람이 상대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습니다(마 7:1-5). 성경적인 권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의 사قم도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근본적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나아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복스러운 예시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완악함은 선한 권면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인 권면을 거절하고, 두세 증인이 함께 하는 권고도 거절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를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서 언약의 외인처럼 여깁니다. 그를 내쫓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단호하게 범죄한 성원에 대해 권징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강설과 교회 권징이라는 열쇠로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복음 설교와 권징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권세인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열쇠의 권세에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열싸안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동래연합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1월10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199장
성경봉독	.....	벤전3:13-17, 사8:11-13
설 교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성도는 까닭없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의 이유를 답할 것을 예비하여야 한다”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그 구원의 복음에 소망을 두고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 “까닭없이 임하는 고난을 두려워 마라”

사도는 성도가 주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하는 열심은 주의 말씀을 향한 소망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성도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2:11ff) 성도를 해치고, 괴롭힐 자는 없을 것입니다.(13) 그러나 때로는 성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성경은 그에게 ‘복있는 자라’고 말합니다.(마5:12)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은 ‘주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갈지라도 까닭없는 고난이나 핍박이,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소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당할 것에 대하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바요, 우리가 신앙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이미 아는 바인 만큼 도리어 주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은 자로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는 약속을 믿고 인내할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였고 그 공생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까닭없이 핍박하고, 위협하는 대적들에 대하여 어떤 위협이나 분노도 두려워하거나 소동할 이유가 없습니다.(사8:13,요14:27)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얹매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약속의 보증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때가 복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14) 의인이라고 고난이나 핍박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비록 그 순간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지만 더욱 그 고난에 대하여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거듭 선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고난을 인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주의 거룩하심을 닦아 자라가도록 해

야 할 것입니다.(사8:13,벤전3:15a)

2. “소망의 이유를 답할 준비를 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핍박이 찾아올 때 주의 약속에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도리어 그 고난의 때를 우리를 연단시키는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인내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롬8:28)

그러나 우리의 인내와 선한 열심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우리의 대적들을 굴복시킬 뿐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15) 곧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대답하다’는 단어는 ‘변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우리 구원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답할, 변호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 교회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주님에 대하여 변호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에 온유함과 주를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준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의 이유를 물어왔습니다. ‘그런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떤 강렬한 소망이 있길래 그런 삶을 살아가나?’고 질문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때 세상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 세상이, 사회가, 불신자들이 더 이상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소망의 이유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온유함도 없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데 거기서 우리에게 소망을 발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하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선한 양심과 선을 행함으로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1) **선한양심** : 성도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먼저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주의 선한 뜻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2) **선행함** :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행실은 주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그의 보이신 본을 따라 사는 거룩한 생활을 말합니다.

주의 복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양심은 선한 일에 열심히 나아가게 하며, 우리의 행실이 죄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16-17)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1월10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35장
성경봉독	.....	마 16:18-19, 18:15-20
설 교	천국의 열쇠	부모대독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84문: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징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귄 밖에서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1. 첫 번째 열쇠: 거룩한 복음의 강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은 “열리고 닫힙니다.” 열리는 것이 먼저인 이유는, 원래 문이 닫혀있는 상태였다는 걸 전제합니다. 복음설교가 없이는 모든 죄인들이 천국 문 바깥에 있었습니다. 복음의 설교를 듣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립니다.

이 점에서 설교자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의무가 주어집